LG전자, 태풍 수해지역 찾아 임시 서비스 진행 LG전자는 4일 경북 영덕군과 강원 삼척시, 5일 경북 울진군에 임시 서비스 지점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서비스 지점은 침수된 가전을 무상으로 세척하고 부품을 교환해주는 등 태풍 피해를 입은 가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강릉과 울진 일부 지역에서는 엔지니어가 직접 피해 가구를 찾아 가전 제품 세척을 돕기도 했다. 서비스 장비를 갖춘 특장차도 운영했다. /LG전자

LG유플러스, 화담숲 고객 초청 행사 진행 LG유플러스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화담숲과 곤지암리조트로 1박 2일간 고객을 초대하는 가을맞이 프로모션 '공감릴레이'를 연다고 6일 밝혔다. 화담숲 단풍 여행에 선정된 이용자에게는 ▲곤지암리조트 1박 2일 숙박 ▲가족 사진 촬영 ▲저녁 만찬 ▲화담숲 입장권 ▲가족 사진 인화 및 모바일 앨범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선정된 고객 100명은 최대 3인까지 동반 가능해 총 400여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LG유플러스

한국프랜차이즈協, 대만 프랜차이즈博 한국관 참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4~7일(현지시각) 개최된 '2019 대만 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참가했다고 6일 밝혔다. 대만프랜차이즈협회(ACFPT) 주최로 지난 4일 대만 타이베이 세계무역센터(TWTC) 1홀에서 개막한 이번 박람회는 20회째를 맞아 1200개 부스의 아시아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롯데월드타워, 달 착륙 50주년 기념 공공미술 전시 롯데물산은 오는 27일까지 롯데월드타워가 위치한 석촌호수 동호 및 주변 공간에서 스티키몬스터랩과 함께하는 '루나 프로젝트' 공공미술을 전시한다고 6일 밝혔다. '루나 프로젝트'는 스누피 달 착륙 50주년을 기념해 인류의 원대한 꿈과 도전, 스누피의 사랑 메시지를 우주 몬스터 친구들의 귀여운 모습을 통해 보여준다. /롯데물산

인사

◆ **청와대** △ 제2부속비서관 최상영 △ 일자리기획비서관 이준협

◆ **농림축산식품부** ◇ 신규 임명 △ 장관정책보좌관 정기수 △ 장관정책보좌관 김상훈

◆ **KBS** △ 대구방송총국 보도국장 김기현 △ 제주방송총국 보도국장 김익태

◆ **연합뉴스** △ 편집총국장(편집국장 겸임) 이성한 △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김경석

◆ **세계일보** △ 기획국 기획팀장 김형준 △ 총무국 인사관리팀장 김원식 △ 총무국 재경팀장 박경옥 △ 광고국 광고관리팀장 이용중 △ 독자서비스국 강북팀장 서광태 △ 대외협력국 대외협력팀장 정훈진

부음

▲ 조명덕씨 별세, 최형열(화순군 부군수)씨 장모상 = 6일 오전 5시, 고려대 구로병원 장례식장 113호, 발인 8일 오전 8시.

▲ 김남옥씨 별세, 윤복희·보병(전 춘천고 교사)·미리·용병(실상사 살림위원장)씨 모친상, 엄기영(전 MBC 사장)·박승원씨 장모상 = 5일 오전 10시, 춘천호반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8일 오전 7시. (033-254-9103)

침해경고, 불법행위 해당될까?

정 영 훈 변호사·변리사의 알기 쉬운 지식재산 이야기

Q. A사와 B사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자동차용 블랙박스를 'Z쇼핑'이라는 홈쇼핑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회사들이다. A사는 2015년부터 Z쇼핑을 통해 블랙박스(이하 'A사 블랙박스')를 판매했고, B사는 2016년부터 A사 블랙박스보다 저렴한 블랙박스(이하 'B사 블랙박스')를 Z쇼핑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B사 블랙박스가 Z쇼핑을 시청하는 시청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자,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A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Z쇼핑'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침해경고장을 발송했다.

"B사 블랙박스는 A사 블랙박스를 모방한 유사제품으로, Z쇼핑의 B사 블랙박스 판매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이다.

이에 A사는 Z쇼핑에 대하여 디자인 사용금지청구,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른 물품의 폐기청구,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고 있고, 향후 특허등록이 이루어지면 침해방지 및 손해배상에서 더 나아가 디자인보호법 제220조(디자인권 침해죄)에 따른 형사고소도 불사할 예정이다.

그러므로 A사는 Z쇼핑에게 신속히 위와 같은 침해행위를 중단하고 A사와 사이에 적절한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을 권유한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기 바란다."

Z쇼핑은 위 침해경고장을 받은 다음날부터 B사 블랙박스의 판매방송을 중단했다. 이에 필자는 B사를 대리하여 A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이에 대해 A사는 권리자로서의 당연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는 침해경고가 불법행위라는 B사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가?

특허권자, 디자인권자, 상표권자 등(이하 '특허권자 등')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며 감정까지 소모하여야 하는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침해 혐의자에게 침해경고를 함으로써 분쟁을 신속하고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특허권자 등의 침해경고가 별다른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할 때가 많다. 심지어, 특허권자 등의 침해경고가 자신에게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

위 사안에서, 법원은 "A사의 Z쇼핑에 대한 경고장 발송행위는 외형적으로 권리행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고, 그 실질은 사회상규상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B사의 신용을 훼손하고 경쟁에서 우위에 설 목적에서 한 위법한 행위라 봄이 타당하다"고 보고, A사가 B사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가합529142 판결·확정)

해당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침해경고자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침해경고장 작성시 아래의 사항에 주의했으면 한다. 첫째, 경쟁업체가 아닌 '경쟁업체의 거래처'에 침해경고장을 발송할 때는 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침해경고장에서 특허권 침해, 디자인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를 단정짓고 그 중단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은 자신에게 독이 될 수 있다. 실제로는 그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때, 침해경고를 한 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위험이 더욱 커짐은 물론이다. 단정적인 표현을 가급적 피하면서도 침해경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고장이 바람직한 침해경고장이다. 그럼에도 강력한 침해경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같은 침해경고를 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행위에 관하여 충분한 사실조사나 법률적 검토를 하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아무리 변호사나 변리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침해경고장을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침해경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데 유의해야 한다. 상대방의 행위가 특허권 침해, 디자인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인지 여부가 모호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비로소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안에서는 침해경고장 발송 이전에 침해금지가처분신청 등의 사법적 구제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것 역시 침해경고를 불법행위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바른

국내 최대상금 '제네시스 골프축제' 10일 개막

최경주·임성재 등 120명 선수 참여
총 상금 15억, 제네시스 車 등 혜택

작년 5월에 열린 '2018 제네시스 챔피언십' 대회 전경

국내 최대 상금 규모의 '2019 제네시스 챔피언십'이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인천 송도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제네시스 챔피언십은 국내 남자 골프 활성화를 위해 제네시스 브랜드가 2016년부터 개최해온 대회로, 선수들의 치열한 승부를 위한 난이도 높은 코스와 갤러리를 위한 알찬 프로그램을 매년 선보이고 있다.

이번 대회는 올해 KPGA 코리안 투어를 결산하는 자리로, 최경주 선수 등 120명의 선수들이 국내 최고 상금인 15억원(우승상금 3억원)과 제네시스 차량, '2020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2019 더 CJ컵' 출전권 등의 혜택을 걸고 승부를 겨룬다.

3년 연속 제네시스 챔피언십에 참가하고 있는 최경주 선수는 내년 시니어 투어 입회를 앞두고 이번 대회에서 마지막 투혼을 발휘한다.

2018-2019 시즌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PGA '올해의 신인상'을 수상한 임성재 선수, 2017년 1회 제네시스 챔피언십에서 코스 레코드 타이를 기록(8언더파, 64타)한 노승열 선수, 지난 시즌 PGA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이경훈·김민휘 선수, 유러피언투어에서 떠오르는 신예로 주목받은 이민우 선수도 참가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제3대 화도기념사업회 이사장에 조선영 선임

화도기념사업회는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조선영 광운학원 이사장(사진)을 제3대 화도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 화도기념사업회는 광운학원 설립자인 화도(花島) 조광운 박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설립됐다.

조광운 박사의 손녀인 조선영 이사장은 2001년 6월 카네기멜론대학을 졸업하고 일리노이대학교 어바나-샴페인캠퍼스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연세대 경영대학원에서 조직이론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연세대 대학원 경영연구소, KPMG 컨설팅 등에서 근무했다. 2018년 4월부터는 학교법인 광운학원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